

## 전남·광주 통합 추진에 따른 여수시의 입장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따른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논의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방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중심의 일방적 구조 개편이나, 일부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도 통합의 동등한 주체로서 명확한 권한을 보장 받고, 그에 걸맞은 지역 발전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는 지금의 통합 논의와 병행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다음의 5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 첫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을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의 전초 기지로 만들고, CCUS 클러스터와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맞춤형 R&D 정부 지원으로 석유화학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 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한 함께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 둘째,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을 신산업과 대규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광양만권을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동부권 산단의 RE100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 지원을 제안합니다.

지방산단인 울촌제2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의 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제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 셋째,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한반도KTX 신설과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광주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역의 핵심 건의사업으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 넷째, 남해안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 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도시입니다.

이제 여수를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 건립과 국제 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세계가 찾는 해양관광, MICE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 다섯째, 균형있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만큼, 이제는 수산분야의 기능과 인프라가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을 여수로 이전하고,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여수를 대한민국 수산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27년 전, 여수는 전국 최초 주민발의를 통해 '3려(麗) 통합' 을 이뤄낸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도시입니다.

통합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행정 조직 통합으로 끝나면 지역의 정체성과 기능, 발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속도만큼이나 원칙과 과정, 그리고 지역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수시는 지금의 통합논의가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통합'이자 '모든 지역이 고루 이익을 나누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여수시장 정 기 명